

켄텍 1기 학부생들, 학술대회 잇단 수상 성과

英 대학 공동연구...AI 보안 분야 연구역량 입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1기 학부생들이 국내 주요 정보처리·정보보호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달 27일 켄텍에 따르면 학부 1기 졸업생 장현규 학생과 최태준 학생이 각각 한국정보처리학회 하계학술대회(ASK 2026)와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CISC-S 2026)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장현규 학생은 지난 21일 열린

ASK 2026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인 'MMDD-FLARE: 지역·환경 간 연합학습을 통한 메모리 기반 동적 악성코드 탐지'는 국가 간 서로 다른 사이버 공격 환경에서도 내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공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합학습 기반 협력 모델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최태준 학생은 지난 7일 열린 CISC-S 2026에서 '한국정보보호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한국에너지공대 장현규·최태준 학생

논문 'IoT 침입 탐지 시스템의 강건성 향상을 위한 GAN 기반 적대적 공격 생성-학습 프레임워크'는 생성형 AI 기술인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해 사물인터넷

(IoT) 기반 침입탐지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학생의 연구는 학부 졸업 학기 학생 연구 지원비를 바탕으로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ARU)에서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에서 시작됐다.

이현우 지도교수는 "학부 단계부터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운 성과"라며 "켄텍 교육·연구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 두 학생은 켄텍 대학원에 진학해 에너지분야 AI 보안 연구에 이르고 있다. /나주·최준호 기자



이로초 학생·학부모회·새마을부녀회, 양파김치 나눔. 목포시 이로초등학교 학생·학부모회와 이로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달 28일 양파김치 100통(시80만 원 상당)을 이로동에 후원했다. /목포시 제공



광양제철소 '여수 섬 박람회' 맞아 환경 정화활동. 광양제철소는 여수시 개도 일대에서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연안 및 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양·조순익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노인복지관과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여수시노인복지관과 함께 여수시노인복지관 앞마당에서 YGPA와 함께해오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햇 여름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주-제주 초등학생 잇는 '빛탐인 클래스' 열려

5·18 사적지답사 등 평화·인권·생태체험 운영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29일 광주와 제주 지역 초등학교 6학년 결연학급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빛탐인 클래스 평화·인권·생태체험 광주 캠프'를 운영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광주 5·18과 제주 4·3을 연계한 '빛탐인 클래스' 결연을 통해 평화·

인권 교류학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광주동부교육청이 주관해 ▲5·18 사적지 답사 ▲국립 5·18민중묘지 참배 ▲광주솔로몬파크 법체험 ▲지역 학생 간 친교·화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5·18 자유공원,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옛 전남도청 전시관 등을 방문해 5·

18민주화운동 당시의 역사를 함께 되짚어보고 연극 '오! 금남식당'을 관람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월 이야기 퍼즐' 활동을 하며 오월 사적지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날에는 광주솔로몬파크 법체험 프로그램 참여, 국립 5·18민중묘지 참배 등을 하며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현장에서 되새겼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지역 상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평화·인권 교육 가치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탐인 클래스' 학생 40명은 6월 11~12일 제주 캠프에서 제주 4·3 역사 현장을 답사하며 평화·인권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순천대 농업경제학전공 '농촌봉사 문화캠프' 개최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전공은 2박 3일간 주말면 일대에서 '2026년 청년 농촌봉사 문화캠프'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순천대 농업경제학전공 재학생과 그린스마트팜소를 신입생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주말면 문성마을, 구산마을, 둔대마을 등 3개 마을에서 고추 결손 제거, 조경수 가지치기, 하우스 말칭 등 농가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말교류대전'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 마을의 자원과 특성을 분석해 마을 발전 및 홍보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순 일손 돕기를 넘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전공 역량을 지역 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최환숙 주말면 면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농가에 순천대 학생들의 봉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대 이춘수 농업경제학전공 학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강진소방, 군민과 함께 '강진119안전탑' 준공식 개최

민방위 사이렌탑 재활용...쥬덕양 대표, 조형물 2점 기증



강진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강진소방서 앞에서 '강진119안전탑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119안전탑은 군동면사무소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 예정이던 탑을 강진군과 협의해 이전한 것으로,

민방위와 소방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의식을 높이는 홍보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특히 안전탑 주변에는 119 소방정신을 담은 홍보 공간과 함께 소방의 대표 캐릭터인 '영이'와 '웅이' 조형물 2점이 설치됐다. 해당 조형물은 쥬덕양이영정 대표가 기증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과 안전 홍보 콘텐츠를 통해 강진119안전탑은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소방 안전을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열린 안전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강진소방서는 안전탑을 소방홍보와 안전교육, 기념촬영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김경선 기자

남부소방, 현장 역량 강화 호신술 교육

폭언·폭행 상황 대비 구급·펌플런스대원 대상



광주 남부소방서는 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상황에 대비해 구급대원과 펌플런스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대원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크라브마가(Krav Maga) 자격을 갖춘 김홍규 소방장이 진행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김도기 기자

GIST '과학상상 미술대회' 56점 수상

대상 엄재우·고한결...오롱아트홀서 수상작 전시



미래 과학기술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만나 다채로운 그림으로 펼쳐졌다.

지난달 3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지난 16일 GIST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전국 초등학생들이 출품한 작품 230점 가운데 5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GIST 총장상)은 저학년부 엄재우(광양제철남초) 학생과 고학년부 고한결(미산초) 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우주·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핵심 과학기술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올해는 참가자 가족을 포함해 500여명이 캠퍼스를 찾았다.

비행선 원리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사진 촬영, 솜사탕·풍선아트·비눗방울 체험 등 다양한 가족 참여형 과학 문화 축제로 진행됐다. /이동기 기자

순천교육청, 교육공동체와 '정원데이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생태가치 공유



순천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2026년 순천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운데 '순천만의 보물을 찾아라-정원데이트' 과정이 교육공동체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 일원을 활용한 생태 체험 중심 연수로 마련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마을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 곳곳을 걸으며 세계정원을 탐방하고, 정

원드림호에 탑승해 동천의 아름다움을 경관을 체험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과 29일에는 순천조례초와 순천삼산중 교직원 3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가정원 산책과 정원드림호 투어를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정원문화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교육 사례를 나누며 교육공동체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교육청 '학생 K-food 페스티벌' 관내 초·중학생·교직원·학부모 등 250여 명 참석



광양교육지원청은 광양하이텍고등학교에서 관내 초·중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광양 학생 K-food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우리 김(黑), 우리 쌀(白), 꿈을 담은 요리 도전! 흑백 요리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광양은 우리나라 김 산업의 발상지로, 태인동에는 김 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의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광양 김 식지(始殖地)'가 조성

되어 있다. 광양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해 올해 공동 식재료로 '김'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9팀, 중학교 3학년 11팀 등 총 40팀 8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초등 부문 대상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K-오마카세팀(김리원, 윤시은)의 '태인도 크린치 듀오' 작품이, 중등 부문 대상은 광영중학교 하오즈팀(윤도경, 이민하)의 '라이스 김칩 스테이크'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광양·조순익 기자